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장즈창 (중국사회과학원)

국문요약

‘한·중 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은 한·중 간 고유의 인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오해를 불식하고 정서적 유대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중 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이 제출된 것이야말로 목전의 한·중 사이에 존재하는, 나날이 엄중해지는 정서적 소원과 상호 약화된 신뢰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사이의 정서적 소원과 상호 신뢰의 약화라는 현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정도에서 그것은 동아시아 내부에 있는 ‘거대 분단’의 증후를 반영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 내부에 있는 ‘거대분단’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거대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론적 틀을 수립하며,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조성하는 이념적 기초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미래의 이상적 질서를 위해 이론적·역사적 참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중 인문유대, 동아시아, 거대분단, 중도주의

* 중국어 원제는 “巨型分斷的超克與理想東亞的可能性: ‘加強中韓人文紐帶’對於區域未來的意義”이고, 송가배(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가 번역함.

I. 머리말 - ‘한·중 인문유대 강화’ 배후의 난국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과 믿음의 여정(心信之旅)’이라는 표어 아래 중국을 국민 방문하였다. 한 외신은 이 같은 여정을 “진실한 소통과 상호신뢰 증진의 여정”으로 해석하며, 이번 방중의 근본적 의도가 “중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중국인의 마음을 얻어 향후 진솔한 대화를 위한 기초를 쌓고자 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같은 상호신뢰의 증진은 새로운 지역 질서 건설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미래 동북아의 지정학적 형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

이번 방중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중 양국이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 기구인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와 동시에 역사연구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조를 강화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새로운 제안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더욱 튼튼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 한다.

‘한·중 인문유대 강화’의 제안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중 양국은 역사와 문화가 서로 통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양국 간에 ‘인문유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제안을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양국 간에 오해 내지 불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안의 목적은 양국 간의 고유한 인

1) “朴槿惠訪華加強中韓互信”, 『聯合早報』(싱가포르), 2013년 7월 1일.

문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 감정을 돈독히 하며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한·중 인문유대 강화’의 제안은 바로 현재 양국 간 감정이 갈수록 소원해지고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다. 양국 간의 무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40 배 증가하였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활발한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서적 거리감과 상호간의 오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양국 간에 잠재되어 있는 인문유대를 새롭게 강조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제안과 관련하여 양국의 학자들이 깊이 사고하고 엄숙하게 대면해야 할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중국의 대외 관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로서, 다만 중국의 주변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자문화권 혹은 유교 문화권으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지역은 고도의 유사성을 지닌 지역으로, 프랑스의 한학자 레옹 반데르미르슈(Leon Vandermeersch)에 따르면 전근대 시기 고도의 응집력[內聚力을 지닌 지역이다.²⁾ 근대 시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전지구적 제국주의의 억압을 경험하였고, 민족 해방 및 근대화 따라잡기(catching-up)와 같은 유사한 역사적 운명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운명의 응집성으로 인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야 할 동아시아 지역에

2) (웁긴이 주) Léon Vandermeersch는 그의 저서 『Le nouveau Monde sinisé』(1986)에서 한자문화권은 중국에서 전파된 한자라는 공동의 문화를 기초로 매우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소통과 이해, 신뢰가 왜 결여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역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국제 관계의 시각에서 한중 관계만 놓고 봤을 때, 한국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기대 속의 우려’라는 모순적인 심리를 가지는 것은 바로 북한 문제에 기인한다. 수교 20여년 이래 양국의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은 ‘중국 위협론’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중국 위협론이 구체적 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가중되거나 혹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왜 반복적으로 유사한 우려를 낳는가이다. 내가 보기에 역내의 이 같은 ‘기대 속 우려’의 복잡한 심리상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태도를 유도하는 일종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인문전통과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해의 깊이는 우리가 당대의 현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양국의 관계와 지역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현실을 단순한 인과 관계에 기초해 인식하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인문학이 응당 대면해야 하는 정서와 정신, 그리고 역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타당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원대한 상상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한중 양국의 인문학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할 수 있다.

Ⅱ.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 백낙청의 관점에 대한 해석

2008년, 백낙청은 대만에서 했던 '동아시아 화해의 장벽'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동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분단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분단 상황은 주로 냉전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남한과 북한, 중국 대륙과 대만의 영토 분단을 가리킨다. 백낙청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분단체제'라는 시각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 강연에서는 나아가 그가 '거대분단(macro-division)'이라는 상황으로 동아시아 내부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대분단이란 역사적 연원이 비교적 오래된 대규모의 분단으로, '일본과 그 나머지', 그리고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거대분단이다.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탈아입구(脫亞入口)의 국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탈아(脫亞)는 일본 자신이 위치한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입구(入口)는 선진 지역으로 진입하여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시아'와 '유럽'은 단순히 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고도의 가치 함축적인 이념 기호가 된다. 이러한 선진과 낙후, 심지어 문명과 야만의 대립 가운데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애초의 소박한 아시아 정서로부터 대륙주의로 탈바꿈하여, 동아시아를 침략 및 식민지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1945년 패전으로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다만 일본이 가입하려는 선진 행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것은 일미간의 직접적인 특수 관계를 통해 사실상 계속해서 실현되어 왔다. 일본은 부단히 따라잡기와 학습을 통해 소위 선진적 문명 세계의 역사적 방향을 대표하여 그 대리인이 되었다. 바로 이 같은 이념이 지속적으로 존

재함으로써 일본과 그 나머지 지역의 분단이 사실상 일종의 ‘체제’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남북한의 분단 체제와 같이 대립 지역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공생 구조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념 구조로서 고착화된 인식론적 ‘체제’이다. 다시 말해 문명과 야만, 선진과 낙후 간의 대립 구조는 이념적 가치 기준에 의해 일종의 잠재적인 사유 양식으로 고착화되었고, 일원론적 보편주의 아래 흑백논리의 이원 대립적 인식론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 영역의 ‘분단체제’는 근대사학 및 사회과학을 경유한 것으로, 진보 사관, 실증주의, 주체철학과 민족주의 등의 사상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형성된 결과이다. 또한 이 체제는 일본사회의 이념적 전제일 뿐만 아니라 후발 국가 내부에 만연한 자의식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은 그저 후발 국가의 자의식 분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 같은 자의식의 분열은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구미 제국주의 정신적 기득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거대분단은 중국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와 지리 공간의 거대한 규모에 기인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거의 일반적인 민족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규모, 역사, 내적 다원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중국은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개념의 민족국가가 아니며, 또한 같을 수도 없다. 중국이 자신의 고유한 민족주의 특성 등을 지닌 채 일반적인 민족국가의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고자 할 때,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지 않음’은 곧 심각한 부조화와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만다.³⁾ 다시 말해 중국과 그 나머지의 분단이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특

3) 白樂晴, “東亞和解的路障,”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臺北: 聯經出版, 2010), p.270.

수한 국가 성격과 거대한 지리적 규모로 인해 나머지 국가와 다름, 비대칭, 불균형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국가를 기본 구성단위로 하며 국가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권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근대에서, 중국은 자신의 역사와 공간 규모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민족국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타국과 대등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구속할 수도 없다. 사실 이 같은 시각의 이면에는 전통 중국이 중화 제국이고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근대 제국주의와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제국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즉 언제나 제국이 될 잠재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민족국가를 기본적인 정치 단위로 하는 근대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중국은 예외, 그것도 위협한 예외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그 나머지 지역의 거대분단이란, 지리 공간 규모의 비대칭, 전근대적 국가 성격과 근대 민족국가 사이의 부적응, 그리고 역사적인 중심-주변 질서와 근대의 탈중심적 국제질서 사이의 부조화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이 제시한 동아시아 내부의 두 가지 거대분단을 종합해 본다면,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 중 나머지 지역은 주로 일본과 한반도이며,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에서 나머지만 주로 중국과 한반도이다. 즉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거대분단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그 가운데 미묘한 위치에 처해있다. 남한의 경우, 백낙청의 말처럼 친일파와 친미파가 통치계급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나머지 지역에 대해 남한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은 그 근대사에서 드러나듯이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 더 근접해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의 분단이 중일 간의 분열 관계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만약 우리가 ‘일본과 그 나머지’ 분단 뒤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중국과 그 나머지’ 분단에 적용한다면, 그

것은 선진과 낙후의 분단, 즉 낙후한 중국과 선진적 일본 사이의 분단이 될 것이다. 중국 내부의 근대화론자들은 만청(晩晴) 시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시각으로 중일 관계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조차 “낙후한 자는 얻어맞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증명하는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중국과 그 나머지’, 특히 일본과의 분단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바로 이른바 선진에 대한 낙후라는 것의 저항이다. 이러한 저항은 또한 ‘일본과 그 나머지’의 분단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분단을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차원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 차원을 구성한다. 만약 ‘혁명’의 차원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 분단의 또 다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관의 분단으로서, 전근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분단까지 포함한다.

사실상 바로 이러한 역사관, 가치관,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 ‘중국과 그 나머지’간의 분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장벽이 되었던 것이다. 본래 전근대 동아시아를 응집시켰던 문화와 역사적 요소는 오늘날 인문유대로 작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단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유교는 지역문화의 상징적 공유자원으로 1970~80년대 ‘일본 모델’과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공 모델을 설명하는 전통 요소가 되었고,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론이 등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에 나타난 ‘유교사회주의’의 사상적 동기 역시 ‘중국 모델’의 성공 경험에 대하여 역사적·문화적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다. 동일한 문화 자원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역사적 결과로 해석되는 이러한 상황은, 동일한 문화 전통이라고 다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심지어 현실 속에서 거대분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사실은 표면적의 유사성으로 인해 감정이 자동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며, 설사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오직 ‘느낌으로서 통하는[感而遂通]⁴⁾ 감통력(感通力)으로 소통의 길을 열고, 느끼고 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그 가운데 깨달은 지혜를 통해 상대방의 역사적 곤경과 고통에 도달할 때, 비로소 감정이 붓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본래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바로 타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도덕적 감성에 있다. 따라서 인문유대 강화의 핵심은 감통력을 기르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서로 간의 인식과 이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가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그것은 인(仁)으로부터 지(智)에 도달하며, 지(智)로서 인(仁)으로 통하는 경지이다. 즉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론의 변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지합일(仁智合一)의 감통력을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

4) (윤진이 주) 『주역(周易)』 「계사 상전(繫辭 上傳)」의 “(아무런 마음과 작위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응하여 마침내 (사물의 모든 원리에) 통하게 되었다[寂然不動, 感而遂通]”의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Ⅲ.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중도주의’ 지혜와 이데올로기 비판

여기서 다시 한 번 백낙청의 사상적 작업을 통해 거대분단의 극복을 사고해보자. 백낙청은 ‘지혜가 현대 과학 지식에 대해 갖는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지혜는 과학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조정하고 견제하는 능력이다.’⁵⁾ 즉 지혜는 과학적 인식을 안내하는 도덕 능력이다. 도덕 능력의 인도가 있어야 비로소 과학적 지식은 인간 소외가 아닌 인류의 생활에 대해 진정한 의미가 있는 통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이데올로기적 관념의 속박을 깨부수는 도구이다. 백낙청이 제기한 ‘변혁적 중도주의’는 바로 이 같은 지혜로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은 근대 각종 이데올로기의 미혹을 타파하고 거대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어,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른바 ‘중도(中道)’는 불교의 중관(中觀) 사상에서 ‘희론(戲論, 개념 혹은 이론)’의 집착을 깨기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현시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중도주의’란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집착도 타파하여 이데올로기의 근원적 성질을 환원하고, 이와 동시에 현실의 요구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태도이자 능력이다. 그렇다면 중도주의 인식론이란 바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일원론적인 선언을 상대화하여, 동시에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원화된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그 진리성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중도주의 인식론에 따라

5) 한국 학자 류준필의 말.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낳은 현실의 은폐를 넘어 현실을 본모습대로 현시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현실에 대한 유한한 현시 작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유한성으로 인한 시야의 제한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진리성을 통해 일정한 현실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중도주의 인식론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점은, 그것이 현실을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주체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전면적으로 현실을 관조함으로써 가치 창조의 능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로써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집착으로부터도 해방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체는 더 이상 근대철학의 자아 긍정을 통한 자기동일적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무(無)와 유(有)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존재로서, 가치 창조를 통해 부단히 창조를 거듭하는 기능적 주체이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영원히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창조를 통해 본성을 다하고(盡性) 하늘을 안다(知天).

중도주의 인식론을 근거로 우리는 일찍이 동아시아 지역을 주도했던 이념 권력을 상대화할 수 있다. 선진과 낙후, 문명과 야만의 근대화 이념 속에서 선진과 문명은 자아를 단순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고, 노예가 자신을 개조하여 주인이 되는 과정과 같았다.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보편성을 지닌 ‘탈아입구’의 따라잡기 논리는 바로 이처럼 내적 긴장을 결여한 채 자아를 단순히 부정하는 발전 모델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의 비판적 의의는, 단순한 자아 부정의 따라잡기 이념을 또다시 단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라잡기식 발전을 제어할 능력을 지닌 주체를 구해내려 한다는 데 있다. 발전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전시킴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전환이 야기하는 역사적 효과는, 서

구가 선포한 보편주의의 일원론적 세계사 발전 모델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 혹은 동양은 더 이상 서양 혹은 유럽의 자기 확인을 위한 종속적 타자가 아니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효과는 서구를 보편주의의 일원적 주도자에서부터 다시 서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서구를 서구로서 대할 때, 동서양 각자의 문명의 발원지에 서서 다시금 대화와 소통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더욱 풍성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전환하면, 지역 내의 각국은 더 이상 보편주의적 가치 질서에 따라 역내 질서를 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균형 잡힌 태도로 서로의 발전 모델을 바라볼 것이며, 상이한 발전 모델은 상이한 주체가 각자의 조건에 따라 확립한 자기 발전의 방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은 ‘저항’을 주제로 한 혁명 이데올로기로 비판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일본의 ‘탈아입구’ 이데올로기와 대조적으로 아시아를 기초로 유럽과 제국에 저항하는 담론과 실천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 개념은 본래 유럽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타자라는 점에서, 아시아를 본위로 한 저항은 이상한 논리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유럽이 타자로 설정한 자신을 받아들 이면서 동시에 그 설정의 특정 내용에 대해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다. 유럽의 타자적 상상으로서의 아시아와 비교할 때, 이러한 아시아 관념은 유럽의 억압으로 인한 망국멸종(亡國滅種)의 위기의식 속에서 저항을 연 대하는 연합체로서, 일종의 ‘부정적 연합체(negative unity)’이다.⁶⁾ 즉 공동의 적에 대해 형성된 정치 행동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만약 공동의 적

⁶⁾ Rebecca E. Karl, “Creating Asia: China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no.4(1998), p.1103.

이 사라진다면 정치 행동으로서의 아시아도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한국 학자 류준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피억압자에 대한 저항 속에 자신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즉 타자에 대한 부정 속에 자기 부정이 없다면 이 저항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구속되고 말 것이다. 즉 그것은 노예가 주인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치 전환적인 창조의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진정으로 가치 전환적인 창조로서의 저항은 억압자뿐만 아니라 피억압자 자신도 저항의 대상이 됨으로써, 억압과 피억압의 가치 질서를 철저히 전복시켜 억압을 제거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개조를 모색한다. 이 같은 저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의 자각이 필요한데, 바로 저항 중 일관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의 각성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같은 이중의 부정을 통해 형성된 주체는 그 자체로 가치와 문화의 원리이다. 그것은 타자를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으며,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타자의 성장 조건으로 만드는, '이타위자(以他爲自)'의 주체 형성 원리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도덕 원리이기도 하다. 주체는 '이타위자'의 도덕적 상호 작용을 통해 부단히 자아 형성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타자의 형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넓이와 두께를 부여한다. 그 결과 진정한 제물평등(齊物平等)의 가치 질서가 실현된다.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파생물로, 근대 주체철학이 민족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다. 절대적 확실성을 지닌 자아에서 출발한 근대의 주체철학은, 비록 중간에 부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부정에 대한 부정의 형식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자아의 확실성을 재확인한다. 그것은 폐쇄적으로 고립된 나선형 구조로서, 완정성에서 출발해 완정성으로 끝나고, 잠재적 완정성과

실현된 완성성 모두를 내포한다. 이러한 주체는 신과 같다. 따라서 민족 주체는 신화이다. 또한 이러한 주체나 민족은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이다. 반면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는 근원에 대한 부단한 상호 질의 과정(源流互質⁷⁾)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변화하는 주체 의식이다. 그것은 역사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종일관 역사 속에 관찰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체가 역사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에 따를 때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가 바로 주체 형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민족만이 중요할 뿐, 역사는 그저 민족 신화가 상연되는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를 직시할 때, 우리는 역사의 어떠한 사소한 부분도 지나칠 수 없으며, 고의적으로 회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소한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이해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은 전근대사와 근대사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두 시기의 단절 역시 역사의 연속성에서 이해할 때 그 진정한 해석이 가능하다. 과감히 조선의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피할 수 없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오백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조선왕조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성취이며, 우리가 깊이 연구할 만한 풍부한 조선의 역사와 정치적 지혜가 존재한다. 만약 조선왕조를 이해한다면 14~19세기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실질적 변천에 대해 깊이 이해할

7) (윤진이 주) ‘원류호질(源流互質)’은 『문사통의(文史通義)』의 중요한 사학 비평 방법 중 하나이다. 저자 장학성(章學誠, 1738~1801)은 후세의 학자가 근원을 망각하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고대 사학 등을 연구할 때 근원을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다원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상상에 간혀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 사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근대 중국을 깊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 근대사 변천의 동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역사에 진입하는 깊이를 결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미래 동아시아의 본질은 바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달려 있다. 역사의 지혜는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서, 이민족 간의 이질성은 진정한 소통의 불가능성을 낳는다. 폐쇄적인 동질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족들은 귀천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지만, 소통 불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 간의 관계에는 패권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민족 간의 다원주의적 평등이 추상적인 형식적 평등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규모 및 힘의 실질적 불평등을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족 간의 추상적 평등은 그저 국제관계를 조화시키는 국제법 규범일 뿐, 민족 관계를 조화시키는 정치 규범이 될 수 없다. 근대적 조건 하에 권력 정치(power politics)가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공정한 국제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 공정한 국제정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 간의 추상적 평등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제거하고, 철저한 정치적 지혜를 통해 규모와 힘의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 차이는 자연적·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무조건 불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진정한 평등은 추상적인 ‘일률적 평등’에서의 보편적 평등주의가 아니며, 또한 추상적인 ‘자유로운 평등’에서의 다원주의적 평등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같지 않으면서 같은(不齊而齊)’가

치 대등적인 평등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평등성이다. 이러한 평등은 ‘본성에 맞추는(適性)’ 것이 아니라 ‘본성을 다하게 하는(盡性)’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개체가 충분히 발전하고 스스로 주재할 조건을 부여받는지, 또한 외재적 질서가 규정한 ‘본성(性)’의 의미를 수용하고 승인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등성만이 진정으로 개체의 특수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⁸⁾

나아가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윤리적 요구이자 동시에 정치적 지혜이다. 규모의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윤리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큰 자에 대한 윤리적 요구이다. 큰 자가 자신의 ‘کم’을 직시하는 것은 그 크기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매개 작용의 کم을 자각하는 것이다. ‘같지 않으면서 같은’ 제물평등(齊物平等)의 세계에서 ‘کم’이란 ‘매개’ 작용이 크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대함을 의미한다.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주체 형성의 복잡한 조건을 직시하는 것이며,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차이에 따른 상이한 윤리적 요구를 직시하는 것이다. 역사와 차이에 대한 직시는 정리(情理)에 더욱 부합하는 정치질서를 세울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낙청의 지혜 창조로 다시 돌아오자. 백낙청은 일찍이 제3세계를 정의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세계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내가 보기에 제3세계의 의도는, 또는 제3세계 개념이 제시된 의도는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데 묶어서 하나의 전체로 보자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라, 보통 민중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제3세계 관점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느 국가가 어느 세계에 속하는지 다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⁹⁾

8) 張志強, “操齊物以解紛, 明天倪以爲量: 論章太炎‘齊物’哲學的形成及其意趣,” 『中國哲學史』, 2012年 第3期(2012).

백낙청에 따르면 제3세계는 세계를 구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강대국과 다른 시야 및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정의한다. 제3세계는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가치관이며 정치관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 분단을 극복하고 인문유대를 다시 강화하며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천 효과가 있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이상적인 동아시아를 건설하고 이로부터 이상적 세계 건설로까지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들이 바로 ‘한·중 인문유대 강화’ 논의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 갖는 의의일 것이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8일

9) 白樂晴, “全球化時代的第三世界及民族文學概念,”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 p.191.

【참고문헌】

외국어단행본, 외국어논문

Karl, E. Rebecca. “Creating Asia: China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no.4 (1998).

Vandermeersch, Léon. *Le nouveau Monde sinisé*.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6.

張志强. “操齊物以解紛, 明天倪以爲量: 論章太炎‘齊物’哲學的形成及其意趣.” 『中國哲學史』. 2012年 第3期 (2012).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 臺北: 聯經出版, 2010.

신문

『聯合早報』(싱가포르)

Overcoming the 'Macro-division' and the possibility of ideal East Asia:
the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to the future

Zhang, Zhi-Qi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is to get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s, to enhance emotional bond and mutual trust by strengthening the humaniti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eflects that the proposal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implies emotional distance and weakened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emotional distance and weakened mutual trust is not an accident. In some degree, it reflects the symptoms of "macro-division" within East Asia. This article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effects of "macro-division", constructs epistemological frame through which the "macro-division" is expected to overcome and then carries on crit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grounds for "macro-division". Furthermore, this article tries to provide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ference for Korea, China and even future ideal order of East Asia.

Key words: Korea-China Humanities Ties, East Asia, macro-division, Centrism

장즈창(張志强, Jiang, Zhi-Qiang)

베이징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서울대학 철학연구소,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 중국사상문화학 연구실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중국철학연구소 주임(主任)을 맡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朱陸孔佛 現代思想: 佛學與晚明以來中國思想的現代轉換』, “전통과 당대 중국: 전통부흥 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교차하는 텍스트, 동아시아』(창비)에 한국어로 수록됨) 등이 있다.

역자: 송가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현대(現當代)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석사논문은 “韓少功 소설 『爸爸』의 해석적 긴장에 관한 연구”이다.